

A close-up photograph of several hands gently cupping small green seedlings growing out of dark brown soil. The background is softly blurred, showing more greenery and a warm, natural light source. The overall mood is one of care, growth,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생태적 회심, 돌봄의 문화

2023년 마산교구 소공동체장 연수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생태신학
강의

찬미받으소서 와 함께하는
생태영성 40주간
천주교 대구대교구 특별기획
5월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REC

쉽게, 간단하게, 맛있게~

생태탕

생태적 회심, 돌봄의 문화

- I. 생태적 관심
- II. 경이로움의 재발견
- III. 지구의 울부짖음,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 IV. 돌봄의 문화를 위하여!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CS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I. 생태적 관심



꽃

- 김춘수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關心 (관심)

-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달라보인다.
- 더 가까워보이고, 더 제대로 보인다.



➤ 생태적 회심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 그동안 내가 무심했던 것에 좀 더 눈길을 주고, 관심의
폭을 '**나**'에서 '**우리**'로 넓히는 성숙한 사람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닫힌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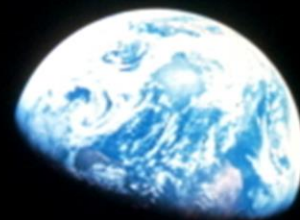


타자와 이 세계를 향한 '열린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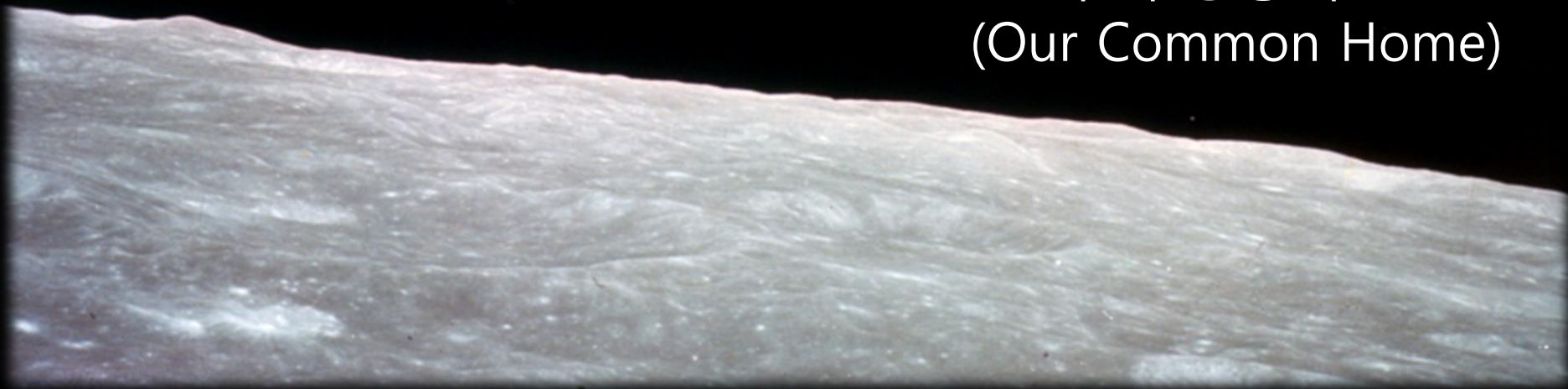


HOTEL ?

HOME !



우리 공동의 집
(Our Common Home)



누가 살고 있는가?





II. 경이로움의 재발견



“바다는... 지금 네가 있는 곳이란 다.”





-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느님 안에** 있다!
- 하느님은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 깊숙이 마치 공기처럼 **세상 곳곳에** 내재하신다.

“자연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분 현존의 자리”

(찬미받으소서, 88항)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지구의 신성함과 경이로움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지구는 인류는 물론 하느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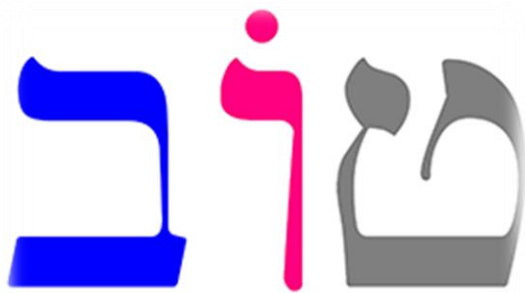
❖ 경이로움의 재발견





- 하느님 창조의 신비
- 감탄, 경이로움!
- '우와(Wow)'라는 감탄사

- 나이들어 보인다?
 -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감탄사'를 간직한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 창세기: “보시니 **좋았다.**” (토브: *Tob*) – ‘하느님의 감탄사’



©Joo, Wonjun

tōb

● 창조주이신 분께 **찬미**를!

➤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송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찬미받으소서, 87항)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참으로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다.”

- **하느님의 감탄사**(*tob*)가 우리 가운데 살아 있게 하자!

- ‘야! 멋있다.’
- ‘와! 아름답다.’
- ‘아! 신비롭다.’
- ‘오~ 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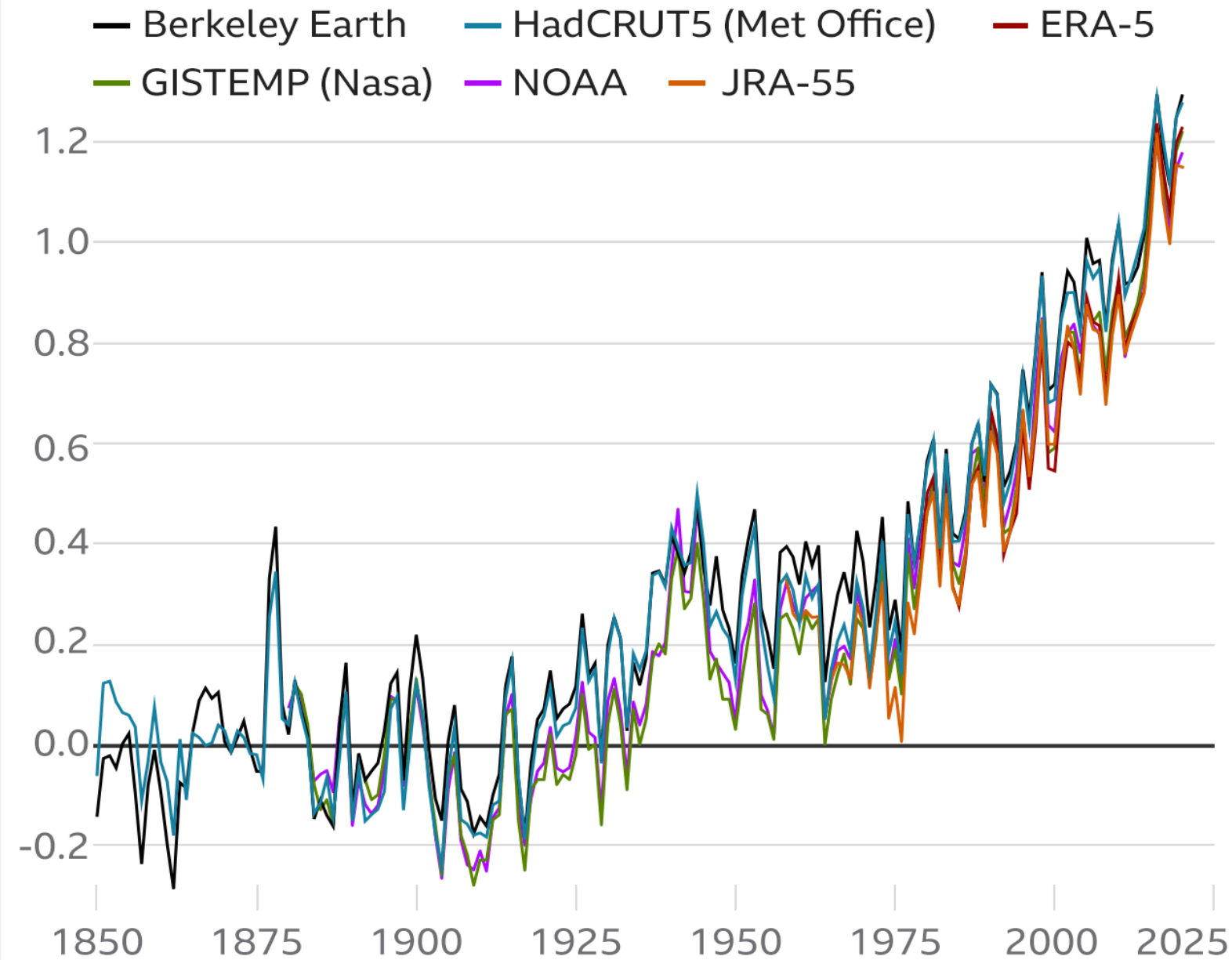
III. 지구의 울부짖음,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우리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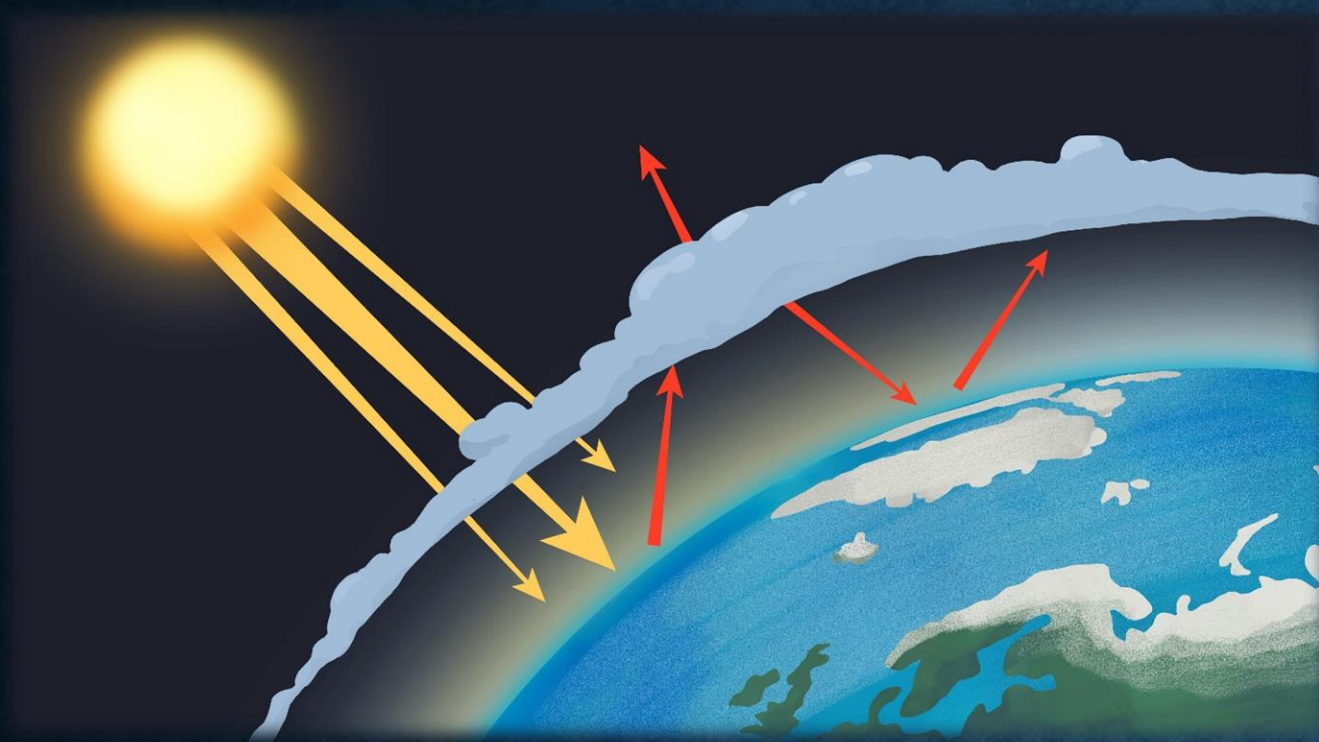


Temperature rise since 1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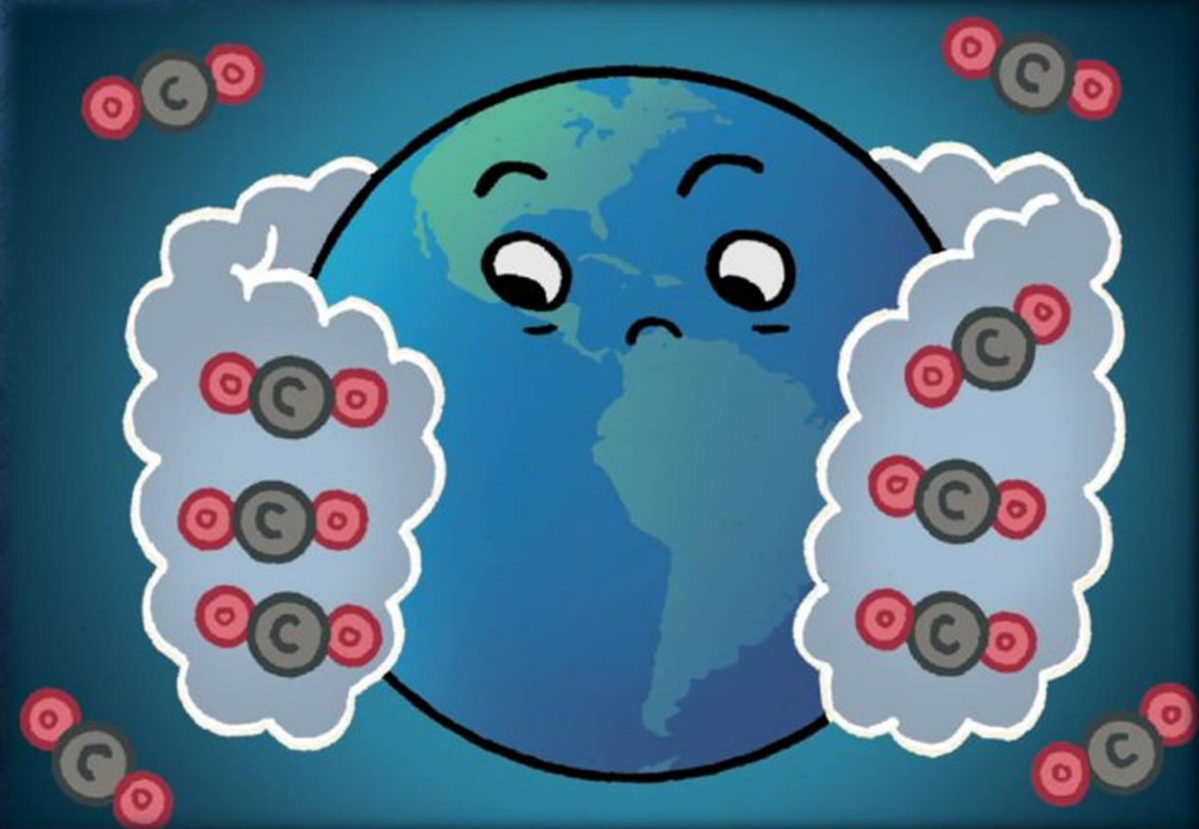
Global mean temperature change from pre-industrial levels, °C



지구 온난화



온실 가스





기후 재앙에 더 많이 노출될 '미래 세대'

2020년생이 1960년생과 비교해 평생 기후 위기 겪을 확률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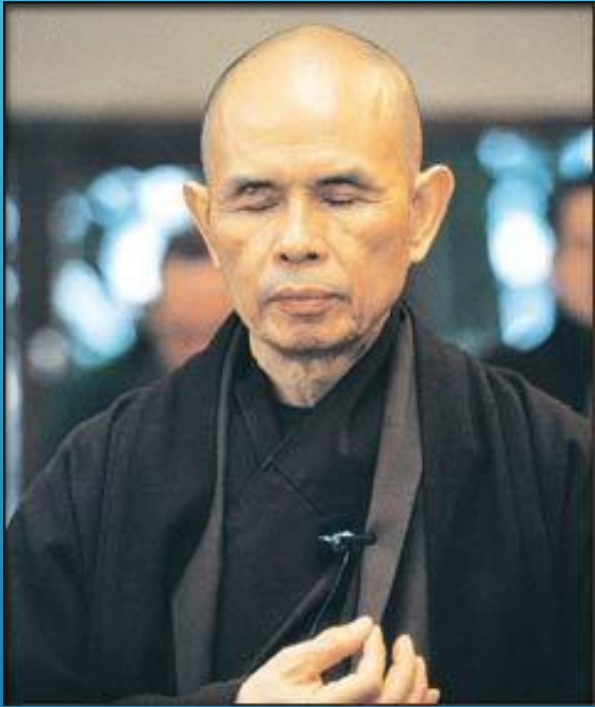


저소득·분쟁 국가 아동이 가장 큰 피해
아프가니스탄 신생아 폭염 노출 확률, 조부모 세대의 18배

- 생태 위기는 단순히 어떤 심각한 '문제'만이 아니다.
- 현상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지구의
울부짖음**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 틱 낫한 스님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서
지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땅이 우는 소리를 들어
야, 이 시대에 참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1. 지구의 울부짖음: 멸종



- 해마다 수천 종의 식물과 동물이 멸종
- 속도 더 빨라진 6번째 대멸종



- 도도새
파란영양
스텔라 바다소
태즈매니아 늑대





2.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든 환경 훼손의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생태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가난한
사람들은 이 문제에 가장
적게 영향을 끼친다.

- ✓ 10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



기후 난민



- 유엔 난민기구(UNHCR)
 -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후 재난으로 매년 2150만 명에 이르는 실항민과 난민이 발생했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가?

걱정, 두려움?

문제 분석, 해결책 모색?





“누가 이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울어야 할지를, 어떻게 연민을 경험해야 할지를 잊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고통’** 말입니다. 무관심의 세계화가 우리에게서 **슬퍼하는 능력**을 제거해버렸습니다!”

➤ 골치 아픈 문제?



Climate Refugees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로마 12,15)



● 생태적 회심은 **아파하는 마음**에서 깊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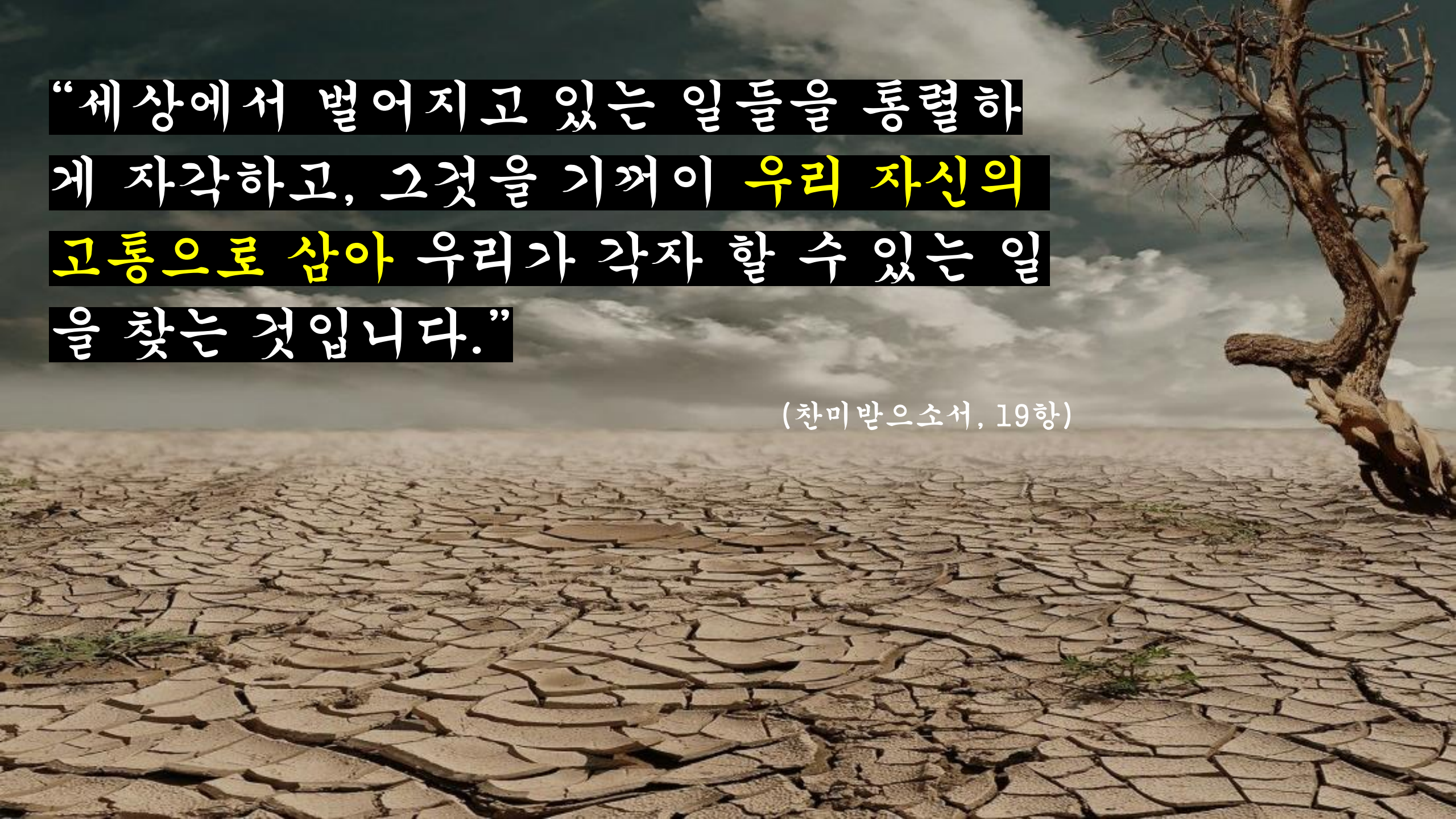
- 하느님 피조물인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 피조물의 부르짖음 속 창조주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 그래서 우리가 직접 '**베로니카의 손수건**'이 되어 하느님의 고통과 지구 공동체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



© Roy Lagarde / Greenpeace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렬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
을 찾는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19항)





IV. 돌봄의 문화를 위하여!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를 보았더라도 그것을 아프게 느끼는 사람은
흔치 않다.

문제를 보고 아파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



지구촌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 과거의 위기: **결핍**

➤ 생태 위기: **과잉**

- '덧셈', '곱셈'에서 집착한 문명
- '**뺄셈**', '**나눗셈**'의 문화가 필요

1. 생태적 밸런스





제로웨이스트 5R운동

재사용
再使用

빈병을 회수, 세척해
그 용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

재활용
再活用

빈병의 재료로
다른 용도의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것



Refuse (필요없는 물건 거절하기)

상점이나 식당에서 받는 영수증,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을 받지 않는다



Reduce (필요하며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줄이기)

새로운 제품보다 중고제품, 버리기 대신 쓸 만한 물건을 이웃에게 나눈다



Reuse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기)

장바구니와 리유즈 백, 다회용기를 챙긴다



Recycle (재활용하기)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거나 리사이클링 제품 사용한다



Rot (썩는 제품 사용하기)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생분해되는 것을 구입한다



➤ 21세기에 '절제'가 왜 말인가?

<Barbara Kruger>



모든 피조물과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한 40일의 약속,

"사순시기 생태적 단식"

생태환경위원회 사순시기 캠페인

하나, 기억합니다.

인간의 무한 욕망이 초래한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수많은 생명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단식하여 진통을 겪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둘,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던 생활에서 이제는 돌아와 '창조주 하느님,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루가 15, 21)하고 고백합니다. '공동의 집 지구'를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채운 우리의 죄를 뉘우칩시다.

셋, 실천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단식과 절제로 예수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생태적 회개를 다짐합니다. 지구를 돌보는 특별한 사순시기의 생태적 단식과 자선에 참여합니다.

1. 재의 수요일 불필요한 소비하지 않기 <2/26~2/29>

새로운 상품을 찾아 소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순시기를 시작합니다.

2. 사순 제 1주간 일회용(플라스틱) 제품 단식 <3/2~3/7>

장바구니와 휴대용 개인 컵 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개별 포장된 제품,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배달음식을 삼갑니다.

3. 사순제 2주간 전기사용량 줄이기 <3/9~3/14>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 뽑기 실전에서부터 가정용 태양광 설치 등의 결단까지 실천해봅시다.

4. 사순 제 3주간 육류소비를 줄이고 채식하기 <3/16~3/21>

가축이 내놓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많은 열을 지구에 가둡니다.
대규모 목축을 위한 산림벌채, 수질오염도 심각합니다. 채식을 실천해봅시다.

5. 사순제 4주간 전등을 끄고 촛불 기도하기 <3/23~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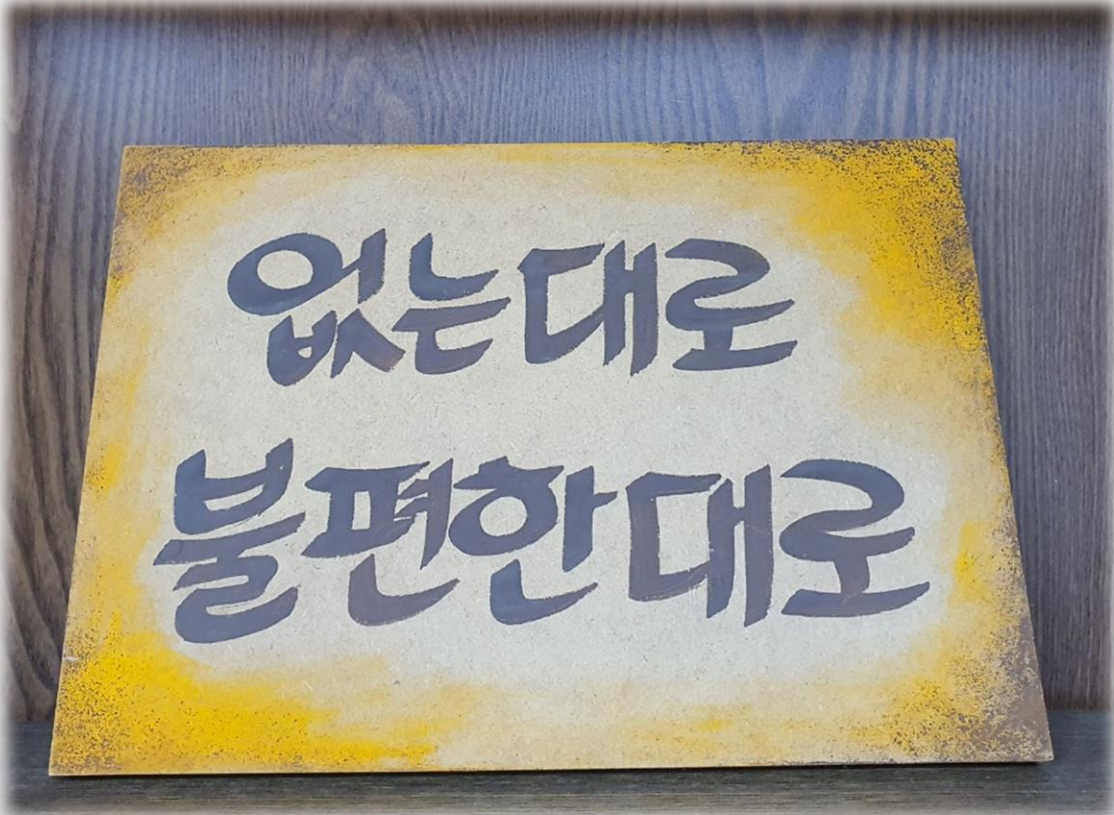
자정에 30분간 전등을 끄고,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촛불 기도를 봉헌합니다.

6. 사순제 5주간 종이단식 <3/30~4/4>

이런저런 활용, 양면 복사, 온라인 청구서 받기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종이 낭비를 줄입니다.

7. 성 주간 생태계 회복을 위한 회개와 투신 <4/6~4/11>

그동안 실천한 여섯 가지를 한 주간 동안에 실천하여 부활 이후의 일상에서도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합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동참합니다.



있는대로
불편한대로

- 물질적인 것을 넘어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삶
-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실천하는 생태적 뉘앙스!

✓ **즐거운 불편**

➤ 불편하고 고생스럽기만 할까?

-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 놓자.
 -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시작을 막거나 도전을 지치게 한다.
 -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
- 행동하면서 배우고 깨닫는다.
 - 일상에 '작은 습관' 더하기

완전하지 않지만 매일 노력하는
여섯 사람의 75가지 힌트

오늘을 조금 바꿉니다

ZERO
WASTE
LIFE

시 - 나태주 -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2. 생태적 나눗셈



(1)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가치 소비)





BETTER FOOD

BETTER LIFE

MBC
뉴스데스크

- ▶ 생태계에 적은 부담을 주는 상품
- ▶ 과대, 불필요한 포장 없는 식료품



- ▶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





제로웨이스트숍&카페

베네인



1. 이쪽에 용기를 놓습니다.
2. 무게를 '0'으로 맞춥니다.
3. 원하는 세제를 용기에 담습니다.
4. 무게를 재어보고 양을 조절하세요.
5. 무게를 달고, 계산대로 가져와 주세요.



(2) 생태적 후원



❖ 생활형 운동 → 요구형 운동





“건전한 압력”







❖ 생태 캠페인





환경보호단체 후원으로 생태보전 실천하기



그린피스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
운동 등을 통해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힘쓰는 국제
환경보호 단체.



WWF

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방지 등을 통해 자연보
호사업을 진행하는 세
계 최대 민간자연보호
단체.



트리플래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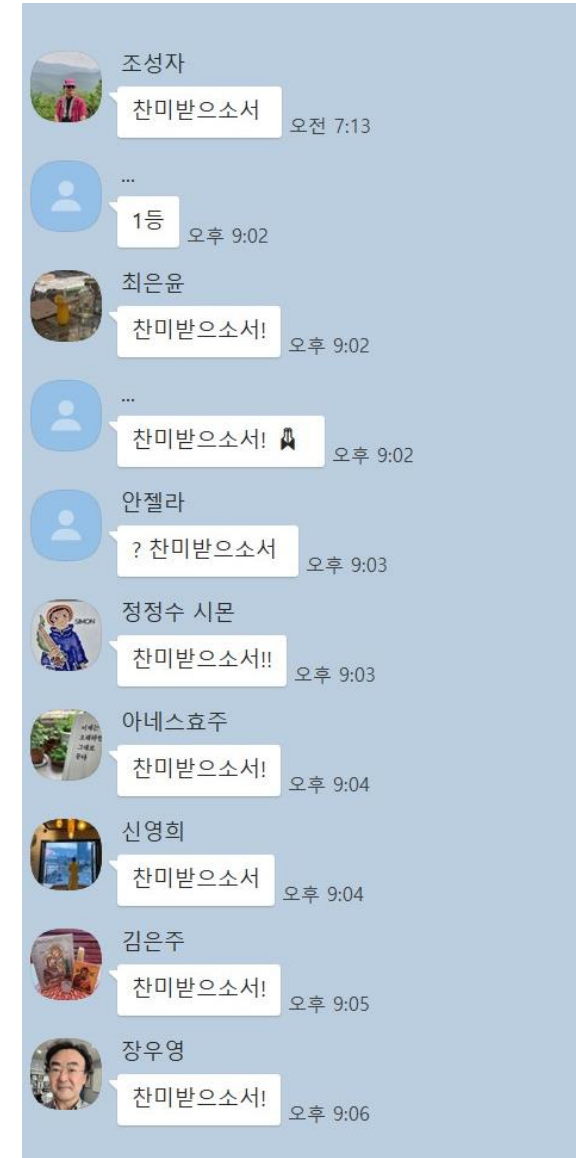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
을 만드는 소셜 벤처.

현재 상영작



❖ 생태적 기도

- 기도한다고 기후변화가 해결될까?
- 기도하는 우리네 **마음과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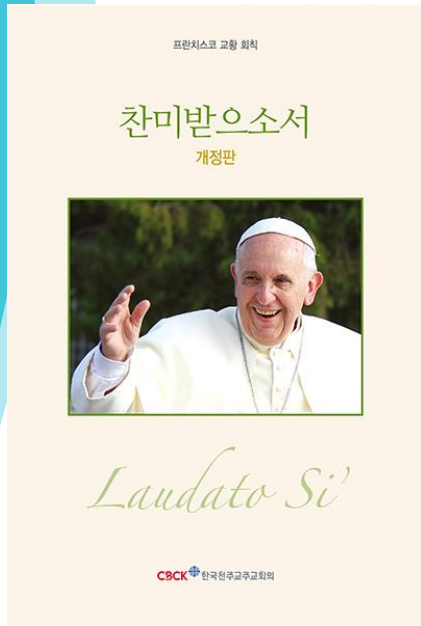


EPILOGUE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





<212항>

“이런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 선을 퍼뜨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 한 사람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이룰 수 있는 '**선한 영향력**'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미국과 중국이 안 변하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의롭고 흠 없는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 는 인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희망을 되찾는 데에는 의로운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찬미받으소서, 71항)

왕가리 마타이 (Wangari Maathai, 1940~2011)

- 케냐의 환경 운동가이자 정치인
- 1977년 나무를 심는 '그린벨트 운동'을 시작하여 아프리카 전역에 나무심기 운동을 주도 (약 4500만 그루)
- 민주주의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도 노력
- 아프리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 (2004년)을 수상



나하나
꽃피어

진동화

나하나 꽃피어

꽃밭이 들라지꽃기보다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다도 꽃피면

꽃밭이 들라지꽃기보다

꽃밭이 들라지꽃기보다

나하나 꽃피어

꽃밭이 들라지꽃기보다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다도 꽃피면

꽃밭이 들라지꽃기보다

꽃밭이 들라지꽃기보다

진동화

나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 모두가 버리지만 모두가 치우지는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사람들

-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이들

- 그들이 있기에, 우리네
세상은 여전히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A man with a shaved head and a slight smile, wearing a black wetsuit, is shown from the chest up. He is looking slightly to his left. The background is a beach with the ocean and mountains in the distance. The lighting is soft, suggesting late afternoon or early morning. On the left side of the frame, there is white Korean text. In the bottom right corner, there is a line of smaller white Korean text.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김용규 문수정 부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창조질서를 보전하려면 **모든 이의 재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문화, 경험, 계획, 재능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14항)



3.5%의 법칙

- 에리카 체노워스(Erica Chenoweth) 교수가 2013년 발표한 법칙
 - “전체 인구의 3.5%가 지속해서 비폭력 시위를 벌였을 때 실패한 사례는 없었다.”
 - 3.5%의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외치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
- 3.5%는 바닷물에 있는 염분의 양
 - 육지로부터 온갖 오물이 흘러 들어오는데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3.5%의 염분 때문이다.

- 3.5%의 사람이 함께 외치는 소리가 변화를 이끌어내듯이,
- 3.5%의 염분이 바다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원천이듯이,
- 3.5%의 우리가 지구 공동체를 위한 '돌봄의 문화'를 이루어간다면..



“세상이 어둡다고 저주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작은 촛불을
켜십시오.”

- St. 마더 데레사 -





그럼에도

분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 희망의 기쁨을
앗아 가지 못합니다.”

(찬미받으소서, 244항)

